

국 내 소식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전기·통신·소방·건축설계 제외 요구

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가 지난 8월 6일 대한전설회관에서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규방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국장)의 주제발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이윤재 한국전기공사협회 제도개선위원장 등 12명의 공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관련기사 51면/전기신문 기사 전제).

이중 대부분인 9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폐단을 지적, 법제정을 취소하거나 주요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윤재 전기공사업계 대표, 김홍주 통신공사 대표, 김상욱 소방인연합회 회장, 이관영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등 4명은 이법에서 전기·통신·소방·건축설계를 포함하는 것은 토목·건축의 시공과 전혀 다른 전문시공과 설계감리를 함께 둑어, 건설대기업에게 독과점시킴으로써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등 시설물의 안전을 해손한다고 지적 이법에서 전기 등을 삭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김평수 건설공제조합 이사, 이재희 대한설비공사협회 상근이사, 오진웅 대한건설협회 정책사업본부장 등 3명과 이법을 당초 찬성했던 김수삼 중앙대 토토과 교수,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2명을 포함, 5명도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법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전기·통신·소방면허 등을 건교부와 통산·정통·내무부가 이중규제하므로 면허체계 단순화가 아니라 복잡화, 행정규제완화가 아니라 2개 행정부처의 중복규제 등 규제강화라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 졸속입법을 반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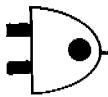
그러나 이법의 제정초안을 말았던 이재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충희 쌍용건설 자문역(대기업 대표), 홍재혁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 3명은 이법 제정에 찬성했다.

상반기 발전량 전년대비 12.4% 증가

한전의 '96년도 상반기 총 발전량은 지난해보다 12.4% 증가한 9백86억6천8백만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체계와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의 비교표>

현 행				제정시도(임반법과 특별법으로 이원화)							폐 단				
시공업 협회		설계·감리업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부설공사조례, 다단계 하도급	행정의 복잡	시공·설계·감리의 유착		
건 설	전 기	통 신	설 계	감 리	전 기	통 신	전력기술	전자수자·전자설비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설비	기술자·기술자	기술자·기술자	기술자·기술자		
건설업법	전기공사 밀집	전기통신 공사업법	건축사업 법	전자·네트워크 설계·설비	기설사업 법	전력기술 법	신기술사업법 법	통신사업법 법	전기통신사업 법	전기통신사업 법	기술자법 법	마규모 공사부터 건설피지법 법	전교부·건설 부	건설대기업 설계·감 리의 힘으로 시공· 설계·감리를 시급진 부문에 확장	
전·수· 목·시공 규정	전기공사 시공규정	전기통신 공사업 법	설계·감 리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감리법 법	시급진만 아니라 설계 감리 법 모두 할 수 있는 설계·감리법 법	전교부·설계 부	설계·감리법 법
이비·건설 목수·건설 현장설 현장설	불법	불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 법	설계·감리법 법	설계·감리법 법	설계·감리법 법



이중 원자력이 3백55억6천1백만kWh로 전체의 36.1%, 화력이 6백4억3천3백만kWh(2.5%)를 차지했다.

한편 6월 한달동안 총 발전량은 1백66억7천6백만k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의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11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전체 발전량중 36.1%를 점유전력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도 매년 여름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전력 수급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원전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본격 상업가동에 들어간 영광 4호기의 무리없는 운전으로 올여름 전력 수급에 숨통을 터주는 중요한 뒷을 하고 있다.

부하관리 요금제 수용가 참여도 높다

부하관리 요금제에 대한 수용가들의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발전소 고장이나 이상고온 등에 의한 수급차질 시 수용가와 한전이 협력하여 수급을 조절했을 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부하이전 요금할인제도의 경우 올해 2백32호와 1천10MW를 약정, 지난해 실제 828MW보다 22% 증가했다.

여름철 최대수요전력 발생 예상기간중에 일시 휴가나 설비보수를 실시하여 최대수요를 조정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감액해 주는 여름철 휴가·보수기간 조정 요금제도도 총 2천1백25 수용가가 참여 키로 약정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약정실적보다 48%가 늘어난 것이다. 또 자율절전 요금제도는 여름철 일시 부하조정이 가능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최대 수요를 줄이는 경우 감액해 주는 제도인데 올해 4백36호(6백MW)와 약정, 지난해 53호보다 크게 늘어났다.

전력산업 기술용어 표준화 연구사업 추진

우리나라의 학술용어, 과학기술용어 및 각종 산업기술(전기·전자)용어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

족하고 특히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한전, 전기학회, 전기협회가 주축이 되어 「전기·전자용어 표준화 및 순화」작업을 추진, 용어집으로 편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집 편찬은 3년6개월 예정으로 약 5만 단어의 전력기술용어에 대한 용어집 편찬과 그중 약 3만 단어에 대하여는 해설을 결들인 사전형태로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9년까지 진행되는 이 작업은 전기·전자분야를 송배전, 전기기기, 계측·제어, 고전압 및 재료, 전기일반 등의 5개 분야로 세분하여 수행되며, 작업의 내용은 크게 용어의 수집, 집필, 교열, 감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국립 국어연구원 등 정부 관련기관의 공식적인 감수를 받을 예정이다.

해 외 소식

점멸시간 사전입력 타임 스위치 개발

미국 와트스타퍼사는 최근 미리 설정해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조명을 소등시키는 디지털 타임 스위치를 개발, 시판했다.

이 제품은 스위치 전면에 부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명이 꺼질 때까지의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특징이다.

또 조명이 깨지기 전에 소동을 알리는 음성신호 장치나 표시등이 장착되어 있다.

자가측정기 부착 지하케이블 측정기

최근 미국 아이디얼 인더스트리스사는 지하케이블 측정기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측정기는 12V 배터리 전동기, 수신기, 자가위치 탐지기가 부착된 9V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가위치 탐지기는 장애물을 정확하게 감지한다.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방수용 콘센트

미국 어플레톤 일렉트릭사에서는 방수용 콘센트를 개발했다. 이 콘센트는 위험스러운 전기적 작업에서 물에 의한 피해를 대폭 줄이도록 안전성이 강화되었다.

6백V 등급을 가진 이 제품은 NEMA 3, 3R, 4, 4X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CPH 플러그 와 30·60·1백A 퓨즈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사용범위 폭넓은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

미국 테러트럴 시스템사는 각종 빌딩 자동제어에 적합한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 최근 시판했다.

이 제품은 빌딩의 화재 예방장치, 인명구호장치, 기타 보안장치 등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이 제품은 네트워크나 IBM 컴퓨터 등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처럼 적용범위가 넓어 사용상의 편리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회원(사)소식

네팔 초오유봉 폐러글라이딩 원정

협회 이상배회원(삼호기전 대표)은 지난 8월 17일 50일 일정으로 네팔 초오유봉(8,201m, 세계 6위 고봉) 폐러글라이딩 원정에 나섰다.

지역 산악인 및 활공인 6명과 함께 초오유봉 폐러글라이딩 원정에 나선 이상배회원은 원정길에 앞서 “역사적인 폐러글라이딩을 성공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지역 산악문화 창달과 항공스포츠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해지역 복구지원 활동

전기안전관리 대행연합회(회장 : 김성태) 수도권 지역 27개 대행사는 지난 8월 1일 경기도 문산지역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신규대행사업체

◎ (유)한국관리공사

- 대 표 자 : 전안균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48-10
- 등록일자 : 1996년 7월 31일
- 등록번호 : 전북 1-7호
- 전화번호 : 0652)226-6417~9

축하드립니다

- ◎ 대전지부 오연진회원, 신세기통신 중리대리점 개업(7. 27) : 연락처 042)636-0017
- ◎ 충남지부 이희평지부장, 충남 서북부무역상 사협의회 회장 선임
- ◎ 대구지부 박상현씨(범한전기제작소 대표) 종신회원(No 1029) 복권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 ◎ 총무과 조은영씨 모친별세(8. 16)

충북지부 이전안내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229-15
(화원2층)
- 전화번호 : 0431)62-8584(종전과 같음)

